

# 1694일 만의 완투승, '대투수' 양현종은 건재했다



KIA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위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에 선발 등판해 포수 한준수와 완투승을 합작한 뒤 포옹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1일 KT전 9이닝 1실점 승리  
33타자 102구 27개 아웃카운트  
개인 9호·올 KBO 리그 1호  
“공격적 투구로 좋은 결과”



‘大投手(대투수)’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올해 KBO 리그 첫 완투승의 주인공이 되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KT위즈 33명의 타자를 상대로 102구를 던져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정리하며 8피안타 1사사구 1실점만 내주는 위력투를 펼쳤다.

양현종은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에 9이닝을 102구로 소화하며 1실점만 허용하는 위력투로 KIA의 9-1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양현종은 1회초 첫 상대인 천성호에게 2루타를 맞은 뒤 후속 타자 강백호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선제 실점하고 경기를 출발했다.

하지만 멜 로하스 주니어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반전했고, 1회말 KIA 타선이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적시타와 최원준의 2타점 적시타로 3-1 역전에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위력을 과시했다.

특히 양현종은 1회초 로하스를 시작으로 4회초 박병호, 8회초 천성호까지 세 개의 병살타를 유도하며 노련한 투구를 펼쳤다.

탈삼진도 6개를 챙겼고 사사구 역시 9회초 조대현에게 허용한 것이 유일했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 후 “꼭 이런 경기를 하고 싶었다”며 “불펜 투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현종의 말대로 KIA는 올 시즌 필승조와 추격조를 가리지 않고 불펜에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이의리가 시즌 초반부터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해 대체 선수를 가동하면서 불펜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그는 “운 좋게 타자들이 점수도 여유 있게 뽑아줬다”며 “6회부터 완투 기회라고 생각했고 8회부터는 운에 맡기자고 생각했다. 특히 8회초 1사 만루에서는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바꾸려고 했는데 병살타가 나오면서 운도 따라줬다”고 말했다.

특히 양현종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도 타자와 빠른 승부를 의도한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다만 이 투구에 대한 공을 자신이 아닌 호흡을 맞춘 포수 한준수에게 돌렸다.

양현종은 “직구 속도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구도 잘 던질 수 있었다. 타자들이 공격적이다 보니 투구를 더 공격적으로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한)준수의 리드도 좋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중간중간 얘기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해준 덕분에 적은 투구 수로 길

게 이닝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두 차례 기록한 8이닝 투구가 최다였다.

지난해 10월11일 키움전에서 8이닝을 97구로 막았음에도 다음 등판을 대비해 마운드를 내려왔고, 양현종뿐만 아니라 KBO 리그의 모든 투수들이 완투 또는 완봉을 기록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리그에서 처음이었고 개인 통산으로는 1694일 만이었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완투나 완봉 기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끊으면서 미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즌을 통틀어 완투한 투수가 없어서 비판도 들었다”면서도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완투를 하면서 기록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테랑으로서 팀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의 올 시즌 목표는 이미 KBO 리그 최초로 달성한 9시즌 연속 170이닝 기록을 10시즌까지 더 늘리는 것이다.

양현종은 “나이가 많아 구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편견을 조금은 갠 느낌이다”며 “아직 제 공에 자신이 있고 상대와 싸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팀 성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감이나 책임감 없이 제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해 팀에 보탬이 되고 뜻깊은 기록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1 완승을 거둔 뒤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광주FC, K리그1 10라운드 베스트 팀

엄지성·정호연 베스트 11



6연패 탈출에 성공한 광주FC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선제골을 터트린 엄지성과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해낸 정호연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광주FC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광주는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맞대결에서 3-1 완승을 거뒀다.

광주는 이날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원정을 떠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전반 추가시간 5분 엄지성의 페널티킥 득점과 후반 6분 두현석의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이탈리아의 자책골, 후반 24분 이희균

의 득점까지 세 골을 몰아쳤다.

광주는 후반 26분 안태현에게 중거리슛으로 추격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0분 서진수의 중거리슛이 골포스트를 때렸고, 후반 44분 유리 조나탄의 헤더는 크로스바를 때리며 두 골 차 리드를 지켜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엄지성과 정호연은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돼 활약을 인정받았다. 올림픽(23세 이하) 대표팀에서 복귀한 엄지성은 전반 추가시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하며 다득점의 시작을 알렸다.

정호연은 이날 경기에 105분 풀타임 출장하며 두 차례 슈팅을 모두 유효슈팅으로 연결하며 위협적인 움직임도 보였고, 8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100%였다.

한규빈 기자

## 광주시청 육상팀, 36년 만의 400m 릴레이 올림픽 티켓 노린다

김국영·김태호·고승환·이재성  
4-5일 세계릴레이선수권대회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33)과 김태호(31), 고승환(26), 이재성(22)이 주축을 이룬 한국 남자 육상 400m 릴레이 국가대표팀이 36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김국영과 김태호, 고승환, 이재성은 이시몬(23·안양시청)과 팀을 이뤄 오는 4-5일(현지 시간) 바하마 나소 바하마 국립경기장(토마스 로빈슨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세계릴레이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400m와 1600m 릴레이, 혼성 1600m 릴레이 등 5개 종목이 열리지만 한국은 남자 400m 릴레이에만 출전한다. 한국은 당초 남자 400m 릴레이에 6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준혁(23·국군체육부대)이 부상으로 낙마해 5명이 파견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예선 4개 조 1·2위 또는 패자부활전 3개 조 1·2위에 들면 파리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다. 남자 400m 릴레이에는 32개국이 출전해 예선과 패자부활전, 결선을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한다.

예선과 패자부활전 조 1·2위를 차지한 14개 국가 외에도 2개 국가에 티켓이 주어지는데 18개 국가 중 기록이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2개 국가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한국은 가장 좋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지난해 항저우



한국 남자 육상 400m 릴레이 국가대표팀이 2024 세계릴레이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바하마 나소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아시아게임 동메달을 합작했던 김국영과 고승환, 이재성이 다시 주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한국은 이정태(27·안양시청)를 시작으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 순으로 달려 한국신기록 타이인 38초74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이 올림픽 릴레이에 출전한 것은 개최국 자격을 얻었던 1988년 서울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한국은 남녀 400m와 1600m 릴레이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남자 400m 릴레이에서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했다.

광주시청 육상팀 만행인 김국영은 올림픽 진출을 향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현재 바하마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 김국영은 “올림픽에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후배들과 후회 없이 도전해 보겠다. 아직 자력으로 올림픽에

나선 경험이 없는 만큼 처음으로 출전권을 따내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바하마에 오기 전까지 진천선수촌에서 호흡을 맞추는데 주력했다. 개인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바통 터치에 실수가 없다면 충분히 한국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깨야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38초74 이내에 결승선을 통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은 “광주시청 선수들이 한국 육상 남자 릴레이를 책임지고 있는데 좋은 성적으로 올림픽 출전권과 한국신기록 경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른 나라 선수들의 개인기록이 9초대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기록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